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성경은 자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 삶으로 실천하기 · 스트롱 번호가 포함된 KJV 성경 구절

실천하기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기어가기, 걷기, 달리기, 완주하기
자비 — 기초 성경 교리

개회사

공활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걸음걸이다. 아이는 하루 만에 걷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처음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 다니고,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그의 팔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걷는 법을 가르치며, 그다음에는 혼자서 걷고, 그다음에는 자라서 달린다. 그리고 잘 달리는 자는 경주를 달리며, 그 경주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관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공활도 이와 같다.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H2617, mercy)로서 — 신실함을 지키는 언약적 인자함이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라함(H7356, tender mercies)으로서 — 더 큰 자에게서 더 작은 자에게로 흘러내리는 깊은 사랑이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깊고,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어 단어는 엘레오스(G1656, mercy)로서 — 행동하는 공활, 손을 움직여 돕게 하는 공활이며, 힐라스테리온(G2435, mercy seat)으로서 —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바로 그 자리이다. 이 연구는 공활을 사람의 전 생애 여정을 통해 다룬다. 곧 오직 기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는지, 그것을 얻은 후 그 안에서 어떻게 걷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달리며 병사처럼 그것을 바치는지, 그리고 마침내 공활 자체가 영원히 거하는 그 결승선을 어떻게 넘는지 다룬다. 이를 깊이 살펴보자.

이 연구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1. 공활은 어디에서 발견되며, 사람은 어떻게 처음으로 그것에 이르게 됩니까?
2. 사람은 공활을 얻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3. 자비는 어떻게 사람을 경주의 끝까지 인도하며, 자비 자체는 어떻게 영원히 있는가?

그리스어 핵심 단어

“자비” — **G1656 eleos** — 고통받는 자를 향한 동정, 적극적인 자비
옛 언약의 자비가 새 언어로 넘어옴 — 조상들에게 약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비

“불쌍히 여기다” — **G1653 eleeo** — 고통받는 자를 돕다, 자비를 베푸다
길가에서의 부르짖음 —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고 주께서는 항상 멈추신다

- “자비” — **G3628 oiktirmos** — 긍휼, 동정심, 배가된 자비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여러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드리라
- “창자” — **G4698 splagchnon** — 내장, 즉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자비: 그리스어로 옮겨진 히브리어 태(모태)의 단어
- “긍휼히 여기다” — **G4697 splagchnizomai** — 마음 속 깊이 움직임을 받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탕자에게 달려가시기 전에 느끼셨던 것을 나타내는 복음서의 단어
- “속죄소” — **G2435 hilasterion** — 속죄소 — 언약궤의 금 뚜껑
 히브리서 9:5는 이것을 시은좌라 부르며, 로마서 3:25는 예수님에 대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시은좌로서
- “속죄” — **G2434 hilasmos** — 충족된 화목제물 자체 — 자비의 값이 전부 지불됨
 요한의 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히브리어 핵심어

- “자비” — **H2617 chesed** — 언약적 인자, 변함없는 자비
 그 기초가 되는 시편의 말씀 — 스물여섯 번, 그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 “긍휼” — **H7356 racham** — 긍휼;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자궁을 의미함
 깊은 품에서 나오는 자비—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베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
- “긍휼히 여기다” — **H7355 racham** — 깊이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 동사
 모유 먹이는 어미가 그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 하시리라 말씀하신다
- “은혜를 베푸다” — **H2603 chanan** —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몸을 굽히다, 몸을 숙이다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를 베푸시려 함이라 —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 “속죄소” — **H3727 kapporeth** — 법궤의 금 덮개; 덮다, 속죄하다를 뜻하는 카파르(kaphar)에서 유래함
 긍휼은 관념이 아니다 —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장소, 곧 그분이 피 위에서 사람을 만나신 곳이다
- “용서” — **H5375 nasa** — 들다, 지다, 옮기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서 짐을 벗겨 준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라졌다

I. 기어가기 —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 — 모든 걸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기는 발로 걷기 전에 먼저 손과 무릎으로 기어 다니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비로우며 이미 자비를 받아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비는 먼저 발견되어야 하며, 이 증인들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기어 올라감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며, 그것을 주시고자 일부러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그 사람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부르짖으십시오.)

A. 마태복음 9: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원어 열쇠 / **STRONG'S**: ■ G1653 eleeo

두 맹인이 그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B. 마태복음 15: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원어 열쇠 / **STRONG'S**: ■ G1653 eleeo

가나안 여인이 외쳤다 →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개인적인 생각 — 그 눈먼 자들은 그를 볼 수 없었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열린 문을 발견하였다. 자비는 그것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찾아지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C. 출애굽기 33: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2603 chanan · ■ H7355 racham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 →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D. 이사야 30: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03 chanan · ■ H7355 racham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개인적인 생각 — 주님의 기다리심은 주님께서 뒤로 물러나 계심이 아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부러 기다리신다. 그것은 기다리는 두 존재로 끝난다.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한 사람이다.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대는 지나쳐진 것이 아니라 — 기다림을 받아온 것이다.)

E. 민수기 6: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원어 열쇠 / **STRONG'S**: ■ H2603 chanan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F. 시편 145: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원어 열쇠 / **STRONG'S**: ■ H7356 racham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긍휼히 여기심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치시도다.

G. 이사야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55 racham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 그들은 잊을 수 있으나 =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개인적인 생각 —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는 라캄(H7355, have compassion)이며, 태를 뜻하는 레헬과 가까운 어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사랑 곁에, 곧 어머니와 그 태의 자식 곁에 두시고, 자신의 자비가 그보다 더 깊다고 말씀하신다. 자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만 이 한 가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H. 예레미야 31: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55 racham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애끊나니 →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I. 열왕기상 3: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 누게 하라 하는지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56 racham

그녀의 창자가 그 아들로 인하여 사무쳤더라 →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J. 누가복음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원어 열쇠 / **STRONG'S**: ■ G4697 splagchnizomai

그가 아직도 상당히 멀리 있을 때 →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 — 여기가 기어감이 끝나고 발견됨이 시작되는 곳이다. 아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다 — 아직 오는 중이었고, 아직 씻지 못했고, 아직 먼 나라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갔다. 도착해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네가 아직 길 위에 있을 때 너를 만나러 달려 나온다.)

II. 행함 — 그것을 얻은 후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 — 그 아이는 이제 두 발로 서 있으며, 긍휼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지키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시는 긍휼은 언약의 긍휼임을 주목하십시오 — 맹세하시고, 확실하며,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신 긍휼도 같은 종류입니다 — 한 번 느끼고 마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풀어 가는 친절입니다.)

A. 신명기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신실하신 하나님 →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B. 열왕기상 8:23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 주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C. 시편 89:28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내가 나의 인자를 영원히 지키리니 → 나의 언약이 굳게 서리라.

D. 시편 89: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내 인자를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리로다.

E. 이사야 54:10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 ■ H7355 racham

산들은 떠나며 →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 자비를 입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땅 위를 걸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산들은 떠날지라도 그의 인자하심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날마다 자비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서 있는 바닥입니다.)

F. 시편 85:10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G. 시편 25:10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H. 시편 103:13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I. 누가복음 6:36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629 oiktirmon

그러므로 너희는 자비하라 → 너희 아버지께서도 자비하심과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 — 이것이 자비 안에서 행하는 것 전체를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나름의 자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진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J. 골로새서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원어 열쇠 / **STRONG'S**: ■ G4698 splagchnon · ■ G3628 oiktirmos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입으라 → 긍휼의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K. 빌립보서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원어 열쇠 / **STRONG'S**: ■ G4698 splagchnon · ■ G3628 oiktirmos

그리스도 안의 위로 → 사랑의 위안 → 성령의 교제 → 긍휼과 자비.

L. 요한일서 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원어 열쇠 / **STRONG'S**: ■ G4698 splagchnon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 — 자비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마음속에 따뜻하게 간직된 감정만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를 향해 열어 둔 문이다. 그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그 행함은 바로 여기, 평범한 날들 속에서,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시험받는다.)

III. 경주를 달림 —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처럼 그것에 순종하라

(제 개인적인 생각 — 이제 걸음이 경주가 되고, 자비는 압박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군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며, 그가 싸우는 전투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조차 아닙니다 —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 중에 베푸는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A.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628 oiktirmos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B. 로마서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936 paristemi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개인적인 생각—군인은 자신의 몸을 명령에 내어준다; 공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공훈의 도구로 내어준다. 한때 죄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러진다.)

C. 사무엘상 17: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D. 느헤미야 4: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주는 크시고 두려운 분이심을 기억하라 →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라.

(제 개인적인 생각—느헤미야에서 군사의 싸움은 형제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집을 위한 것이었으며, 영토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군사처럼 항복한 공훈 또한 사람을 위해 싸운다: 궁핍한 형제, 부르짖는 원수, 그대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나그네를 위해.)

E. 마태복음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4697 splagchnizomai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 불쌍히 여기사 →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F. 마가복음 1: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원어 열쇠 / **STRONG'S**: ■ G4697 splagchnizomai

민망히 여기사 →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G. 누가복음 7: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원어 열쇠 / **STRONG'S**: ■ G4697 splagchnizomai

주께서 그를 보시고 → 그를 불쌍히 여기사 → 울지 말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치유는 예수님께 아무런 대가도 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만지셨고, 아무도 돕지 않던 한 과부에게 말을 건네시려고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군인처럼 자비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나쳐 가기가 더 쉬운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H. 야고보서 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4184 polusplagchnos · ■ G3629 oiktirmon

주는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혼자가 아니다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킬 것임.

갈라디아서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야고보서 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낫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내 개인적인 생각—군인은 혼자 싸우지 않으며, 자비 또한 혼자 짊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자비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그것은 어깨를 받쳐주는 자비이다. [여러 구절을 함께 엮은 것—어느 한 구절도 이것을 단독으로 말하지 않는다]—성경은

이 구절들 모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 패턴은 분명하다: 둘이 하나보다 나으며, 짐은 서로 나누어 지도록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는 치유를 가져온다.)

IV. 결승선 — 자비는 영원히 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 모든 경주에는 끝이 있지만, 이 경주의 끝은 벽이 아니라, 경주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자비이다. 자비를 스물여섯 번 언급한 그 시편은 언젠가 다 써버릴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자비 그 자체가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다.)

A. 시편 100:5 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여호와와 선하시니 →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의 진리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B. 시편 89:1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주께서 베푸신 자비를 내가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C. 누가복음 1:50 공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자비가 있으니 → 대대로 이르리로다.

D. 누가복음 1: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밋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자비를 기억하시고 →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내 개인적인 생각 — 시편을 누가복음 곁에 두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음성을 들어본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시편 100:5), 그의 공휼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누가복음 1:50). 결승선이 그 공휼을 끝내지 않는다 — 그것은 다만 그 공휼이 이미 한 사람을 얼마나 멀리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이끌어 갈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E.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공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 공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리라.

F.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434 hilasmos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 →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G. 요한일서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434 hilasmos

사랑은 여기 있으니 →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H. 누가복음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4698 splanchnon · ■ G1656 eleos

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으로 인함이라 →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I. 시편 32: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원어 열쇠 / **STRONG'S**: ■ H5375 nasa · ■ H3680 kakah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J.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 — 다른 이에게 베푸는 공휼은 그것을 베푸는 자에게 결코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는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르게 했고, 아들에게는 십자가 위에 쏟아부은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이 경주의 결승선은 그가 먼저 그것을 달렸기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공휼은 면류관의 모양이기 전에 먼저 그의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

사무엘하 22:26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원어 열쇠 / **STRONG'S:** ■ H2623 chasid · ■ H2616 chasad

자비한 자에게는 주께서 자비를 보이시리이다 —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 날에 부른 노래 (사무엘하 22:1).

시편 18:25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원어 열쇠 / **STRONG'S:** ■ H2623 chasid · ■ H2616 chasad

공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의 공홀하심을 보이시며 — 다시 노래하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게 함이라 (시편 18편, 표제).

고린도후서 13:1 내가 이제 세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144 martus

두세 증인의 입으로 → 모든 말을 확정할지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노래가 두 번 불린다. 한 번은 구원의 날에, 또 한 번은 악장에게 부르는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비로운 자로 나타내신다. 이 경주를 달려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자비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운다 — 자비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이끌어 들어가는 patrón이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성취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형체를 볼 수 있지만, 형체만으로는 무엇이 그것을 드리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이것일 수도 있고, 크기가 비슷한 다른 것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그림자만 바라보는 한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빛이 그 실체를 보여 줄 때까지 그림자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를 다시 돌아보면, 그것이 처음부터 그 실체의 형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예표들이 바로 그러하다. 그것들은 실제 몸에 의해 참되게 그 형체가 이루어진 참 그림자들이다 —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로새서 2:17). 그러나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히브리서 10:1), 그림자만으로는 아무도 온전한 진리를 읽어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빛이 그 몸을 드러내었고 —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돌아보며 그것이 줄곧 지니고 있던 형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보게 된다.

Shadow 출애굽기 25:1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 속죄소를 켈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켈 속에 넣으라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3727 kapporeth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지니라 →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이야기하리라.

Shadow 레위기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원어 열쇠 / **STRONG'S:** ■ H3727 kapporeth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린 피.

Shadow 레위기 16: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5375 nasa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리라.

Shadow 히브리서 9: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435 hilasterion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으니라.

Fulfillment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원어 열쇠 / **STRONG'S**: ■ G2435 hilasterion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Fulfillment 히브리서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단번에 들어가사 →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Fulfillment 호세아 2:23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55 racham · ■ G1653 eleeo

백성이 아니었던 자 →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공홀을 얻지 못하였던 자 → 이제는 공홀을 얻은 자.

(제 개인적인 생각 — 속죄소는 한 장소였지만, 화목제물은 한 인격체이십니다. 염소는 죄를 진영 밖으로 짊어지고 나갔고, 그리스도는 성 밖에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3:25은 속죄소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 자신에게 걸어놓습니다. 그 그림자는 그 나름대로는 참되었지만 — 이제 빛이 그 실체를 드러내었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분의 형체였습니다.)

마무리

유다서 1: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홀을 기다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봄 → 영생에 이르게 하심.

예레미야 애가 3:22 여호와와 자비와 공홀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 ■ H7356 racham

소멸되지 아니함은 그의 자비가 다함이 없음이라 → 아침마다 새로우며 +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 — 그 모든 걸음을 한 줄로 모아본다. 공홀은 낮은 곳에서 발견된다, 아직 멀리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일부터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공홀은 날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산들도 옮길 수 없는 언약처럼 지켜진다. 공홀은 군사의 힘처럼 내어드려지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 싸우며, 그것을 베푸는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니, 마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과 같다. 그리고 공홀은 결승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 그것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며, 여전히 바라보아지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내게 부르짖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분은 길에서 너를 맞으러 달려오셨으며, 그분은 너를 결승선 너머로 데려가실 것이니, 그분의 공홀하심은 그 길 내내 단 한 번도 너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연습 퀴즈

1. 누가복음 15:20 —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 a) 큰아들을 부르러 보냈다
- b) 측은히 여겨 달려가
- c) 그는 자기 마음을 굳게 하였다

2. 이사야 30:18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 b) 이방 나라들 중에서 높아지리라
- c) 언약을 잊어버리다

3. 신명기 7:9 —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 천 대까지
- b) 그들의 자손의 자손
- c) 그를 부르는 모든 자

4. 누가복음 6:36 — 그러므로 너희도 자비하라, 이같이:

- a) 자비로운 자는 자비를 얻는다
- b)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 c)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5. 로마서 12:1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 a) 찬양의 합당한 제사
- b) 거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 c) 불로 드리는 제물

6. 로마서 3:25 —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는 그의:

- a) 의로움
- b) 은혜
- 피

7. 시편 100:5 — 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 a) 대대에
- b) 영원부터 영원까지
- c) 시온에서 영원히

정답: 1-b, 2-a, 3-a, 4-b, 5-b, 6-c, 7-a

이 연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림자가 어떻게 빛을 가져오는가: 일 년에 한 번 피 뿌림을 받은 속죄소(레위기 16:14)는 한 장소였으나, 로마서 3:25은 바로 그 단어를 한 인격체에게 적용시킨다. 하나님께서 한 해에 하루, 한 제사장을 만나시던 그 장소는 이제 어떤 믿는 자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좌가 되었다(히브리서 4:16).

새 언약이 이를 어떻게 더 깊이 밝혀 주는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공훈(신명기 7:9; 시편 89:28)은 영원하며 대대에 이르는 바로 그 공훈이니(시편 100:5; 누가복음 1:50) —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져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게 되었다.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히브리어 RACHAM(H7355/H7356, 공훈히 여기다, 부드러운 자비)은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고, 헬라어 SPLAGCHNIZOMAI(G4697, 불쌍히 여기다)는 그 동일한 그림을 새 언어 속으로 옮겨 담고 있으니 — 자비란 손이 움직이기 전에 가장 깊은 내면에서 먼저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맹인들과 가나안 여인이 온 길로 나아가라 — 그것을 위해 부르짖으라(마태복음 9:27; 15:22); 그것을 따라 형제를 향해 걸으며, 그에게서 네 공훈을 단지 말라(요한1서 3:17); 그리고 자비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먼저 그분께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음을 기억하라(빌립보서 2:7-8).

이것이 영원을 위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하심을 바라봄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며(유다서 21절), 그 공훈은 결코 그치지 아니하여 아침마다 새롭나니(예레미야애가 3:22-23),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하다.

토끼 길: 속죄소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려진 피(레위기 16:14)는 속죄일 전체를 열어 보여준다 — 두 염소, 죄악을 지고 광야로 나가는 염소,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레위기 16장; 히브리서 9장).

→ 가능한 통찰: 율법의 두 돌판은 언약계 안에 있었고, 속죄소는 그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자신의 율법을 치우지 않으셨다 — 그것을 피로 덮으시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공훈은 그 이후로 줄곧 만남의 자리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개인적인 생각)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우리의 성경 공부를 살펴보자

SOURCES & CREDITS

Scriptur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1961),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Public Domain (copyright expired 2011-12-31; confirm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Department, The Bible Society of Korea, 2026-08-06)) — a redistributable edition, looked up exactly and never machine-translated.

Alternate chapter/verse numbering reconciled with STEP Bible TVTMS (CC BY 4.0).

Strong's numbering & original-language data: OpenScriptures Hebrew Bible (CC BY 4.0); STEP Bible.org — TAHOT/TAGNT/TBESH/TBESG (CC BY 4.0); Robinson-Pierpont Byzantine Majority Text (Public Domain); Strong's dictionary, 1890 (Public Domain).

Typography: Google Noto fonts (SIL Open Font License 1.1).

©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 shar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CC BY 4.0).